

누가 ‘사이클링 히트’ 치는가

비하인드 베이스볼

ㅣ 안치용 해설위원이 본 시즌

통산 20회…2013년 이후 6차례나 타고투저…타석 늘면 3루타 확률 ↑
운 70%…타이트한 경기는 힘들어

사이클링 히트는 한 명의 타자가 한 경기에서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두 기록하는 걸 말한다. 타자가 가져갈 수 있는 ‘진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KBO리그 35년 역사상 사이클링 히트는 1982년 6월12일 구덕 삼미전에서 삼성 오대석이 처음 달성한 이래, 올해 KIA 김주찬(4월15일 광주 넥센전)과 두산 박건우(6월16일 광주 KIA전)까지 총 20차례 나왔다. 귀한 기록이지만 점점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6차례 기록이 2013년 이후에 나왔고, 지난해와 올해는 2년 연속으로 한 시즌 사이클링 히트 2개가 나왔다. 왜 이렇게 늘어날 걸까.

가장 먼저 ‘타고투저’ 흐름을 꼽을 수 있다. 타자들의 타격 기술은 물론 장비의 기술력까지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 온전히 팔에 의존해야 하는 투수들의 발전이 더딘 영향이 크다. 2008년 6월26일 대구 삼성전에서 역대 13번째로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했던 안치용 KBS N 해설위원(당시 LG)도 “타고투저 흐름을 빼놓고는 볼 수 없다. 과거에 비해 안타도 늘고 홈런도 늘었다. 자연스레 가장 어려운 홈런이나 3루타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사실 정말 진귀한 기록인데 최근 들어 많이 나오는 추세라 속상한 것도 있다. 그래도 아직 1군과 2군에서 사이클링 히트를 모두 기록한 건 나뉘”이라며 웃었다. 이내 그는 “사실 현장에서 만나 봐도 투수들이 정말 힘들어한다. 투수가 살아남을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모든 기록이 타자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제 완투도 남다른 기록으로 취급받을 정도”라며 투수들의 기록 달성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사이클링 히트는 누가, 어떻게 달성할까.

안 위원은 “운이 70%다. 소위 ‘운



2016시즌에만 벌써 사이클링히트가 2차례나 나왔다. KIA 김주찬이 4월15일 광주 넥센전에서 첫 스타트를 끊었고, 두산 박건우(사진)가 16일 광주 KIA전에서 올 시즌 2번째 사이클링히트를 달성했다. KBO 역대 20회째인 사이클링히트는 2013년 이후에만 6차례나 쏟아졌다.

칠기삼’인 것 같다. 요즘은 잘치고 빠른 선수들이 많다. 대부분의 선수가 능력은 갖고 있다. 이대호 같은 선수도 발이 빨랐다면 몇 번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개 야구가 잘될 때 기록이 나오더라. 나도 2008년이 제일 좋았던 것 같다(101경기 최다출장). 또 3번째 타석 안에 어려운 기록을 만들어놓으면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이 현역 시절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한 순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3번 우익수로 선발 출장한 안 위원은 무려 6차례 타석에 들어섰다. 1회 첫 타석에서 좌전안타, 2회 2번째 타석 삼진, 3회 중견수 키 넘기는 2타점 2루타, 5회 4번째 타석에서 좌월 3점 홈런을 터뜨렸다. 대기록은 6회에 일찌감치 달성됐다. 좌중간으로 향하는 타구에 3루까지 내달려 가장 어려운 3루타를 성공했다.

그가 말한 ‘운’은 어느 지점에서 작

용했을까. 일단 LG는 이날 삼성에 20-1로 대승을 거뒀다. 이미 3회에 10-0으로 도망가면서 삼성의 의지를 꺾은 상태였다. 안 위원은 “타이트한 경기에선 사이클링 히트가 나오기 힘들다. 내가 마지막 3루타를 치기 전, 5회까지 스코어는 19-1이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점수차가 박빙이었다면 보다 타이트한 중계플레이로 3루를 내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올해 두 차례 사이클링 히트가 나올 때에도 마지막 타석에서 운이 따랐다. 홈런-단타-3루타로 2루타 1개만을 남겨뒀던 김주찬은 8회 마지막 타석에서 1사 3루에 상대가 전진수비를 펼친 덕을 봤다. 3루수 앞에서 바운스된 공이 키를 넘기면서 2루까지 내달릴 수 있었다. 2루타-홈런-단타로 가장 어렵다는 3루타를 남겨뒀던 박건우는 9회 중견수가 판단 미스를 범하며 머리 위로 타구가 넘어간 덕에 대기록을 달성했다.

광주 1 | 이명노 기자 narnana@donga.com

역시 메시…1골 2도움 ‘코파’ 한 풀이

개인통산 A매치 ‘55호골’ 경신
아르헨, 4-0 미국 꺾고 결승행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29·FC바르셀로나)는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1·레알 마드리드)와 더불어 당대 최고의 축구선수로 꼽힌다. 2008년부터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를 양분한 두 선수는 똑같이 ‘대표팀 징크스’를 겪었다. 2016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호날두가 여전히 징크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2016 코파 아메리카에 나선 메시는 모처럼 ‘한풀이’ 기회를 잡았다.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는 22일(한국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미국과의 2016 코파 아메리카 준결승에서 4-0 대승을 거뒀다. 역시 메시였다. 2-0으로 앞선 전반 32분 왼발 프리킥으로 상대 골문을 여는 등 1골·2도움으로 아르헨티나를 결승으로 인도했다. 메시는 개인 통산 A매치 55호 골을 기록하며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가브리엘 바티스투타(은퇴)를 넘어 아르헨티나대표팀 역대 최다득점자로 우뚝 섰다.

이제 남은 것은 우승컵뿐. 2005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조국을 위해 뛰기 시작한 메시는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에 힘을 보탤지만, 월드컵이나 코파 아메리카 같은 메이저 대회에선 단 한 차례도 우승의 기쁨을 누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10번)가 22일(한국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벌어진 2016 코파 아메리카 준결승 미국전에서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메시는 이날 골로 아르헨티나 역대 A매치 개인통산 최다골 기록을 갈아 치웠다. 휴스턴(미 텍사스주) 1 AP뉴시스



리지 못했다. 2010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에선 무득점에 그치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메시의 부진 속에 아르헨티나는 8강에서 탈락했다. 2014브라질월드컵

에선 대회 최우수선수(MVP)인 ‘아디다스 골든볼’을 거머쥐었지만, 정작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는 독일에 무릎을 꿇었다. 지난해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도 아르헨티나는 개최국 칠레에 우승컵을 넘겨줬다.

메시는 그동안 수차례 “소속팀에선 모든 우승을 다 해봤지만, 대표팀에선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다. 대표팀 우승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코파 아메리카 우승에 대한 갈증을 강조해왔다. 아르헨티나는 23일 벌어지는 콜롬비아-칠레의 또 다른 준결승 승자와 27일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칠레가 결승에 올라온다면 ‘리턴매치’가 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통신헌 리포트

저침없는 발언·기행에도…

성적으로 말하는 뢰브

(독일 감독)

독일은 22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16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북아일랜드를 1-0으로 꺾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16강에 진출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비만을 감내해야 했던 독일대표팀에서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은 역시 요하임 뢰브(56) 감독이다.

뢰브 감독은 유로2016 개막 이전부터 수차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2006년부터 11년째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것도 한 몫 했겠지만, 그의 패션 스타일이나 일거수일투족에서 느껴지는 특징들이 자연스레 스포트라이트를 유도했다. 이번 대회 개막에 앞서 “너무 수비에 치중하는 나라들이 보이고, 참가국의 확대가 유로의 재미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낳은 데 이어, 13일 우크라이나와의 C조 1차전(2-0 승)에선 바지에 손을 넣었다가 다시 그 손으로 땀샘을 짖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퍼뜨리게 했다. 그는 경기 후 곧바로 “무의식적 행동이었다”며 자신의 기행에 대해 사과했다. 이미 지난 11년간 그는 코를 후비거나 거드랑이 냄새를 맡는 등 여러 독특한 행동으로 이슈가 돼왔다.

저침없는 발언이나 기행들로 스캔들의 중심에 놓이곤 하지만, 사실 뢰브 감독은 사령탑으로서 조맹 반을 부른 적이 훨씬 많다. 커리어만 따져도 이미 세계 톱클래스에 속하며, 감독으로서 이미 정점에 올랐다. 그는 독일 사령탑으로 유로 2008 준우승, 2010남아공월드컵 3위, 2014브라질월드컵 우승 등 굵직한 업적을 쌓았다. 2014년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감독상도 받았고, 같은 해 독일에서도 올해의 감독으로 선정되며 최고의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 들어서도 현시 언론에선 독일의 득점력 저하를 비판하고, 독불장군 같은 뢰브 감독의 성격을 ‘제2의 루디 펠러(전 독일대표팀 감독·현 레버쿠젠 단장)’라며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뢰브 감독은 자신만의 축구철학으로 독일을 정상에 올려놓았고, 주변국들은 이미 수차례 감독을 교체했음에도 유로2016까지 지휘봉을 잡고 있다. 비록 이번 대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전차군단’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뢰브 감독이 지금까지 이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뢰브(독일) 1 | 윤영선 통신원



크로아티아의 이반 페리시치가 22일(한국시간) 누보 스타드 드 보르도에서 벌어진 스페인과의 유로2016 조별리그 D조 3차전 후반 막판 2-1 승리를 결정짓는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보르도(프랑스) 1 AP뉴시스

크로아티아, ‘무적함대’ 꺾고 D조 1위

(스페인)

페리시치·칼리니치 1골 1도움 합작



크로아티아가 ‘무적함대’ 스페인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조 1위로 2016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 16강에 올랐다.

크로아티아는 22일(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누보 스타드 드 보르도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최종 3차전에서 스페인을 2-1로 꺾었다. 크로아티아(2승1무·승점 7)는 대회 통산 4번째 우승을 노리는 스페인(2승1패·승점 6)에 첫 패배를 안기며 D조 1위를 확보했다. 같은 조의 터키는 체코를 2-0으로 제압하고 3위(1승2패·승점 3)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크로아티아의 이반 페리시치(인터밀란)와 니콜라 칼리니치(피오렌티나)의 합작 플레이가 눈부셨다. 나란히 1골·1도움의 활약으로 무실점 2연승을 기록 중이던 스페인의 수비벽을 허물었다. 스페인은 전반 7분 알바로 모라타(유벤투스)의 선제골로 앞서나갔다. 이에 뒤질세라 크로아티아는 전반 45분 칼리니치가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1-1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27분 세르히오 라모스(레알 마드리드)의 페널티킥을 막아낸 크로아티아는 경기 종료 3분 전 페리시치의 결승골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앞서 벌어진 C조 경기에선 스페인과 함께 우승 후보로 꼽히는 독일이 마리오 고메즈(베식타스)의 결승골을 앞세

유로2016 조별리그 C·D조 최종 순위										
조 순위	국가	승	무	패	득	실	승점			
C	1 ★독일	2	1	0	3	0	7			
	2 ★폴란드	2	1	0	2	0	7			
	3 북아일랜드	1	0	2	2	2	3			
	4 우크라이나	0	0	3	0	5	0			
D	1 ★크로아티아	2	1	0	5	3	7			
	2 ★스페인	2	0	1	5	2	6			
	3 터키	1	0	2	2	4	3			
	4 체코	0	1	2	2	5	1			

C조 경기 결과 (22일 한국시간)

독일 1:0 북아일랜드

폴란드 1:0 우크라이나

D조 경기 결과 (22일 한국시간)

터키 2:0 체코

크로아티아 2:1 스페인

※ ★는 16강행 확정.

※ 각조 1·2위(12개국) 및 각조 3위 중 상위 4개국 16강전 진출.

위 북아일랜드를 1-0으로 눌렀다. 독일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1-0으로 이긴 폴란드와 2승1무(승점7)로 동률을 이뤘지만, 득실차(독일 +3·폴란드 +2)에서 앞서 C조 1위로 16강에 합류했다. 북아일랜드는 3위(1승2패·승점 3)로 16강을 향한 마지막 희망을 남겼고, 우크라이나는 3전패로 탈락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코리안 리그 경기 결과 22일(한국시간)	
추신수 텍사스	
신시내티전(홈)	
▶ 선발출전(1번 우익수) ▶ 4타수 0안타 1삼진 ▶ 시즌 타율 0.213(47타수 10안타) ▶ 팀 2-8 패배	
김현수 볼티모어	
샌디에이고전(홈)	
▶ 선발출전(2번 좌익수) ▶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 1볼넷 1삼진 ▶ 시즌 타율 0.333(108타수 36안타) ▶ 팀 7-10 패배	
이대호 시애틀	
디트로이트전(원정)	
▶ 대타출전 ▶ 1타수 1안타 ▶ 시즌 타율 0.293(123타수 36안타) ▶ 팀 2-4 패배	
박병호 미네소타	
필라델피아전(홈)	
▶ 선발출전(7번 지명타자) ▶ 3타수 0안타 1득점 1볼넷 1삼진 ▶ 시즌 타율 0.203(202타수 41안타) ▶ 팀 14-10 승리	
강정호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전(홈)	
▶ 대타출전 ▶ 1타수 0안타 ▶ 시즌 타율 0.276(123타수 34안타) ▶ 팀 4-15 패배	



볼티모어 김현수가 22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덴야드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전에서 데릭 노리스의 홈런 타구를 바라보며 아쉬워하고 있다. 김현수는 이날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고, 볼티모어는 7-10으로 패했다. 볼티모어(미 메릴랜드주) 1 AP뉴시스

김현수 출루머신 변신…SD전 멀티출루

이대호 대타안타…박병호·추신수 침묵

볼티모어 김현수(28)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덴야드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 홈경기에 2번타자 좌익수로 선발출장해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김현수는 1-1로 맞선 3회말 2사 3루에서 루이스 페르도모의 2구째 시속 132km(82마일)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전직시타를 쳐냈다. 6-10으로 뒤진 9회말에는 볼넷으로 출루한 뒤 페드로 알바레즈의 안타 때 득점에 성공했다. 김현수의 시즌 타율은 종전 0.337에서 0.333(108타수 36안타)으로 하락했고, 볼티모어는 7-10으로 졌다.

미네소타 박병호(30)는 미니애폴리스

주 타깃필드에서 열린 필라델피아와 홈경기에서 7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장해 3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박병호의 타율은 0.203(202타수 41안타)이 됐고, 팀은 14-10으로 이겼다.

텍사스 추신수(34)는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와 홈경기에 1번타자 우익수로 선발출장했으나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시애틀 이대호(34)는 코메리카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와 원정경기에 9회초 대타로 나서 안타를 기록했다. 이대호의 타율은 0.293(123타수 36안타)이 됐다. 피츠버그 강정호(29)는 PNC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 홈경기에 대타로 출장해 2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타율은 0.276(123타수 34안타).

강산 기자